

부산비엔날레 10년 내다보기

백 영 제

부산비엔날레 학술위원

1. 부산비엔날레의 전사(前史)

오늘의 부산비엔날레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지역의 미술인들이 뜻을 모아 지난 1981년에 설립했던 ‘부산청년비엔날레’를 모태로 한다. 이 ‘부산청년비엔날레’는 한국 최초의 비엔날레로써 35세 미만의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동시대 조형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실험정신을 추구하면서 1994년까지 7회의 전시를 개최하였다. 주목할 점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부산 미술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였다는 것이며 아시아권 국가 작가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격을 갖춘 국제 비엔날레로 성장함으로써 부산 문화 발전에 일찍이 크게 이바지 하였다.

거듭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1990년부터는 부산미술협회의 사업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고 1987년부터 개최된 ‘바다미술제’와 1991년부터 열리게 된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전신 부산야외조각대전)’을 포함하여 1998년에는 ‘새 천년의 빛 - 동방의 바람’이라는 주제 하에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행사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다. 부산 광역시로부터 일정한 재정 지원과 함께 운영전반과 전시구성에서 이후의 부산비엔날레 행사의 기본 틀을 처음으로 갖추게 됨으로써 1998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재원과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바다미술제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부산청년비엔날레’는 행사의 실행과 운영에 소요되는 안정적 예산의 확보 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짐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정과 사명감 하나로 뭉쳐 7회의 전시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민간 주도의 행사 운영의 사례를 일찍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부산미술의 저력과 역동적 에너지를 확인케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부산비엔날레의 한 축을 이루면서 미술계 안팎의 주목과 관심을 받아온 바다미술제는 1987년에 시작된 ‘바다미술제’를 이어받은 것이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해변을 배경으로 환경미술과 설치미술의 특화된 성격을 띠고 출범된 ‘바다미술제’는 1985년도에 86아시안게임 문화행사로 처음 기획되었으나 준비기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실시되지 못하였다가 1987년에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1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까지 9회에 걸쳐 대중 친화적이고 환경지향적인 야외전시의 전형으로 매년 개최되면서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널리 호응을 얻었다.

특별전의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부산조각프로젝트’ 또한 부산비엔날레 전시의 주요 부분을 이루어왔는데 1991년 올림픽동산 조각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최된 ‘부산야외조각대전’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진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그리하여 ‘2000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는 올림픽동산에 13점의 작품을 남겼고 ‘2002부산비엔날레’ 때에는 26점의 작품으로 사직동의 아시아드 조각광장을 조성하였으며 ‘2004부산비엔날레’에서는 철새 도래지 울숙도에서 20점의 작품들로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하였다. 이어서 ‘2006부산비엔날레’와 ‘2008부산비엔날레’ 때에는 APEC 나루공원에 각각 20점씩 총 40점의 작품들을 배치함으로써 2년마다 계속적으로 항도 부산의 주요 장소를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2. 부산비엔날레의 운영

살펴본 바와 같이 근 20년에 걸친 지역 미술인들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라는 밑거름을 바탕으로 2000년 12월 23일에 사단법인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범시민 조직으로 창립됨에 따라 본격적인 비엔날레 시대를 열어젖히게 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1998년도의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에 이은 2000년도의 ‘2000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른 발전적 계기를 잘 살려낸 결과이기도 하며 이어서 2001년 1월 31일에는 행사 주체의 조직 명칭과 행사의 명칭을 사단법인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부산비엔날레’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 조직

‘2000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부터 ‘2008부산비엔날레’에 이르기까지 부산비엔날레 조직의 기본 골격은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그리고 행사년도에 운영되는 각 전시분과의 구성이라는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2001년 1월의 정관 개정으로 전문위원회의 성격을 띠는 학술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마케팅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학술위원회를 뺀 나머지 위원회는 2004년 이후 존속되지 않고 특별전문위원회로 전시기획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사단법인체로 출범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의 당연직으로 맡게 되고 임원회의 구성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장이 맡는 부조직 위원장과 함께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미술관장, 상공회의소회장, 부산시관광협회장, 부산미술협회이사장 등의 당연직 이사 및 지역의 미술인과 문화계 인사들을 망라하는 선출직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전체 행사를 기획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업무 제반을 총괄하며 상근체제의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시 관련 행정지원과 회계 물자 인력관리 등의 실무를 수행한다.

2) 홍보 및 마케팅

부산비엔날레의 홍보 업무는 2000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때부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왔던 편으로 리플렛과 소식지, 이미지포스터, 기념엽서, 전시안내서 및 전시도록 등의 인쇄매체와 홍보탑, 현수막,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 배너, 전광판 CF, 행사장 안내판 등의 옥외 홍보물

들을 제작하였고 아울러 방송과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하고 프레스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입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비교적 활발한 업무 수행을 보여주었다.

마케팅 업무는 크게 관람객 유치와 수익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관람객 유치는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홍보 방식들과 함께 각종 문화단체나 예술단체 혹은 기업체와 지역별 부녀회 등과의 교섭에 의한 일반 관람객 유치와 더불어 각 학교의 단체 관람을 통한 학생 관람객 유치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여행사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을 유치하거나 매 개최 년도의 각종 국제 행사의 참석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 안내와 주한 미군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업무가 수행된다. 수익사업으로는 입장권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협찬 유치와 전시도록, 가이드북, CD, 기념품 등의 판매 사업이 있는데 근년에는 전문 티켓팅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저변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3) 부대행사

부대행사는 기본적으로 치러지는 개막식과 폐막식 및 행사지원인력 발대식 등은 논외로 하고 무대공연 형식의 행사와 시민 참여형 축제 행사 및 관련 미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그동안 시행되어 왔다. 무대공연의 경우 무용, 국악, 클래식, 합창, 재즈, 대중가요, 연극, 전통예술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시민 참여형 행사와 부대 미술대회로는 감상문 쓰기, 관람객 추천 사은행사, 부산비엔날레사생대전, 부산비엔날레회화대회 등이 있었다.

초기부터 이어져오던 부산비엔날레사생대전과 부산비엔날레회화대회는 2006년까지 시행되다가 지난 2008부터는 특별전 형식의 몇 가지 기념전시회로 대체되었고 ‘갤러리 페스티벌’이나 지역의 몇몇 대안공간을 통한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4) 재정

전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부산청년비엔날레’와 ‘바다미술제’,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을 통합한 ‘1998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때부터 지자체로부터의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후 시비 지원과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행사별 지원금의 규모와 연도별 전체 집행 금액 및 사업비의 규모를 비교해 본 것이다. 여기서 사업비는 홍보비 등의 행사지원비와 인건비 등의 행사운영 경비를 제외한 전시 관련 순 사업비를 의미한다.

<표 1 : 연도별 시비 및 국비 지원금 비교(행사 전년도 지원금을 합산)>

구 분	시비 지원금	국비 지원금	비 고
※ 1998 PICAF	300,000,000원	-	
2000 PICAF	576,000,000원	-	
2002부산비엔날레	1,500,000,000원	1,000,000,000원	
2004부산비엔날레	2,000,000,000원	1,500,000,000원	
2006부산비엔날레	2,000,000,000원	1,800,000,000원	
2008부산비엔날레	2,000,000,000원	1,800,000,000원	

<표 2 : 연도별 전체 집행 금액 및 사업비 비교(행사 前년도 집행 금액을 합산)>

구 분	집행금액	사업비(순수전시비)
※ 1998 PICAF	665,702,922원	395,489,779원
2000 PICAF	1,380,888,000원	1,000,439,000원
2002부산비엔날레	3,753,770,000원	1,559,558,000원
2004부산비엔날레	4,336,686,000원	2,163,589,000원
2006부산비엔날레	4,889,538,000원	3,108,955,000원
2008부산비엔날레	5,201,569,218원	3,269,199,091원

※ '※' 표기는 부산미술협회 주관임

3.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1) 행사주제

부산비엔날레는 행사주제가 내세워지고 부문별 전시에는 행사주제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내는 소주제들이 제시되는 형식을 취한다. 행사주제를 통하여 그 비엔날레 전시의 기본 컨셉과 지향 및 성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작가 선정에 포함하여 전시의 유기적 맥락 및 전시 구성의 전체적 일관성을 염두에 두는 큐레이팅도 행사주제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실행되게 된다.

행사주제는 초기부터 전문위원회로 자리하는 학술위원회에서의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학술세미나 등의 절차를 통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시감독은 먼저 정해진 행사주제를 전시 실행에서 해석하는 입장이 된다. 2006년도와 2008년도에는 선정된 전시감독이 행사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전시감독 선정의 방식이 개최 년도에 따라 조금씩 변경된 것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다.

주제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적용은 각기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비엔날레의 일관된 정체성과 지향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자의 방식은 선정된 감독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감독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시 내용의 다변화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별 비엔날레의 입장과 특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예컨대 광주비엔날레의 경우와 같이 특정의 역사적 배경이나 지향을 갖는 경우라면 전자의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아래의 표는 연도별 부산비엔날레의 행사주제와 전시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 연도별 행사주제 및 전시주제>

구 분	행사주제	전시주제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 1998 PICAF	새 천년의 빛 -동방의 바람- (Light on the New Millennium -Wind from Extreme Orient-)	-	-	-
2000 PICAF	파(波) - 함께하는 삶 (Pa-Togetherness in life)	고도(孤島)를 떠나며 (Leaving the Island)	바다 · 인간 · 조형 Sea · Human · Art	-
2002부산비엔날레	문화에서 문화로 (Culture meets Culture)	도시성 (Urbanity)	-	-
2004부산비엔날레	틈(Chasm, 隙)	틈-N.E.T	틈-건너가기 (Chasm-Crossing Over)	틈-건너가기 (Chasm-Crossing Over)
2006부산비엔날레	어디서나 (Everywhere)	두 도시 이야기 : 부산-서울/서울-부산 (A Tale of Two Cities : Busan-Seoul/Seoul-Busan)	생활 속의 아트 (Art in Life)	대지에의 경의 (Homage to the Earth)
2008부산비엔날레	낭비 (EXPENDITURE)	낭비-항상 이미 지나치기 때문에 (EXPENDITURE-as it is always and already excessive)	비시간성의 항해 (Voyage Without Boundaries)	전위정원 (Avant Garden)

2) 전시감독의 선정

비엔날레 행사의 기본적인 성격상 전시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전체 행사의 성패를 좌우 할 정도로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시감독의 선정 또한 대단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자리한다. 부산 지역 내의 인사이든 외부 인사이든 전시감독은 개최연도에 한정해서 초빙형식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부산비엔날레는 개최 전년도에 시행해 온 ‘국제미술학세미나’에서 전시기획과 관련한 후보들의 발표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방식을 초기에 적용하기도 하고 또 공개 추천을 통한 후보군들 중에 적임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어떠한 방식이든 전시감독 선정에는 전문적 안목과 폭넓은 정보력이 갖추어져야 하고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아래의 표는 역대 전시감독들의 명단이다.

<표 4 : 연도별 전시감독 명단>

구 분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2000 PICAF	故 정진윤 (예술감독 이영철)	김광우	송근배
2002부산비엔날레	김애령	김광우	송근배
2004부산비엔날레	최태만	김광우	김광우
2006부산비엔날레	박만우	류병화	이태호
2008부산비엔날레	김원방	전승보	이정형

※ 2000 PICAF는 분과위원장 체제였음

3) 전시내용

다섯 차례의 전시를 이어오는 동안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관된 맥락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축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전시주제와 관련하여 ‘2000부산비엔날레’와 ‘2002부산비엔날레’까지는 특정의 뚜렷한 이슈를 내세웠다가 보다 20세기의 미술을 반성하면서 시대 정신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방향성을 예술과 삶의 접목과 관계회복에서 모색하였고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의 비엔날레 전시가 갖는 기능을 항구도시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와 장소성을 염두에 두면서 부산비엔날레의 미래를 위한 토대의 구축과 관련한 주제 의식을 가졌다.

여기서 성공적인 비엔날레가 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선정된 전시감독에 의한 전시주제의 구체적 해석과 그에 따른 큐레이팅이 유기적으로 적절히 행해지는가의 여부이다. 그동안 부산비엔날레의 감독들에 의한 주제 해석과 작가 선정에는 기본적인 충실도와 함께 전시 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실행이 충분히 발견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있기도 하였다.

이어서 ‘2004부산비엔날레’에서는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을 통해 보다 명백하고 구체화된 부산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지향을 행사주제 및 전체의 전시 구성을 통해 힘차게 제시하였다. 오늘의 비엔날레 전시는 과거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나 보편적 국제주의와 비역사성의 순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과 문화적 재현들이 갖는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과 역사적 맥락 안에서 생생하게 자리하는 것들, 예컨대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을 경험하는 동안에 형성된 민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상흔(trauma)과 같은 소재를 시각의 층위로 끌어내어 의미론적 독해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언명하였다. 당시 행사주제를 제안했던 이성훈 학술위원은 “부산비엔날레가 여느 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고급미술이라고 하는 찬란한 스펙터클(예술작품의 사적 생산)을 일반 관객에게 선사하는 성스러운 전당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 하면서 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혈(穴)임에도 불구하고 틈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불러내어 문화적 코멘트를 가하는 전략적인 기회(문화의 사회적 생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6부산비엔날레’에서는 전시감독들에 의해 행사주제가 제안되었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주제를 내건 박만우 전시감독의 주제의식은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장

소성의 문제를 한국의 근현대사가 초래한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형에 맞추어 살핀다는 의도에 바탕하였다. 여기에는 2004년도에 제출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한국 사회의 도시병리현상이라는 현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한 기본 개념 위에서 ‘공공영역으로의 확장’이라는 전시 컨셉을 제시한 사례로 이해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CAFE(Contemporary Art For Everyone)라는 프로젝트이며 그 중에서도 CAFE3의 ‘온천천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호응과 함께 참여 작가들로부터도 최적의 전시 장소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대 이상의 전시로 기록되어 있다.

2008부산비엔날레는 ‘낭비(EXPENDITURE)’라는 행사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의 성격과 내용이 다소 도발적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또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전시주제와 관련하여 쓰여진 전시도록의 에세이들은 프랑스의 사상가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낭비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절제·축적·획득을 대신해서 소모·방출·소진을 말하고, 진리·인식·이해·의미·도덕·재현·소통·조화·질서 등의 개념을 대신하여 에너지의 방출과 낭비를 통한 해체·예측불가능성·쾌감·위반·고통·비현실성·무질서·난교·공포·돌연변이 등을 말하는 것은 이 세계와 삶의 총체적 지평을 살피는 데에 필요하고 유효한 문제 의식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비엔날레의 행사주제로서 충분히 고려되고 채택될 수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부산비엔날레의 출발에서부터 2006년의 전시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오던 주제의식의 일관성과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단절된 형태로 제시된 듯 비쳐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수도권만 큼은 아니지만 부산 역시 ‘지나치게 많은 예술들, 형식들, 범주들, 이즘들’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씻기지 않은 부산의 산복도로 여기저기의 산허리에서 세월을 버티어 온 이들에게 과연 문화와 예술의 과잉을 말할 수 있을까?

4. 부산비엔날레의 성과

세계 각국의 몇몇 주요 도시들은 오래 전부터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왔다. 가장 오래된 베니스비엔날레의 경우는 100년이 넘었고(1895년 설립), 미국의 휘트니비엔날레(1932년)와 브라질의 상파울로비엔날레(1951년)도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그 밖에 시드니, 아바나, 이스탄불 등 주요 비엔날레들은 1970년대와 8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광주를 포함하여 상하이, 리용, 타이페이, 베를린, 몬트리올, 요하네스버그, 후쿠오카 등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부산비엔날레의 성과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음을 꼽을 수 있다. 비엔날레 행사가 대규모의 국제 문화교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엔날레 개최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시의 문화적 역량과 저변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근년에 ‘광주에는 비엔날레, 부산에는 영화제’라는 중앙정부 일각의 일도시 특성화 및 집중화 정책에 의하여 부산비엔날레 무용론과 같은 착상이 있기도 하였지만 30년이 가까운 자생적 전통과 비엔날레 창설 10년의 성과와 축적을 바탕으로 마련된 토대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지난 10년간 부산비엔날레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개최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 보았다.

<표 5 : 연도별 참여국가, 출품작가 및 작품 현황>

구분	참여국가				출품작가				출품작품			
	현 대 미술전	바 다 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계	현 대 미술전	바 다 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계	현 대 미술전	바 다 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계
계	-	-	-	-	633	354	103	1,090	1,103	404	100	1,607
2008	22	26	10	39	92	77	20	189	701	195	20	916
2006	39	14	12	39	175	115	24	314	134	99	20	253
2004	38	11	10	40	137	45	20	202	92	34	20	146
2002	36	10	10	40	121	80	26	227	68	39	26	133
2000	35	5	7	37	108	37	13	158	108	37	14	159

<표 6 : 연도별 관람인원 현황>

구 분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합 계	비 고 (외국인)
계	756,866	3,542,611	1,672,400	5,971,877	288,042
2008	175,504	608,711	121,400	905,615	62,777
2006	308,989	940,800	170,000	1,419,789	41,414
2004	107,785	943,100	291,000	1,341,885	41,162
2002	100,595	670,000	930,000	1,700,595	112,523
2000	63,993	380,000	160,000	603,993	30,166

<표 7 : 연도별 학술행사 참여 인원 현황>

구 분	국가	발표자	질의, 토론자	사회자	계 (참여인원)	비고 (청중)
계	-	47	113	21	181	5,174
2007	9	8	41(6)	4	53	590
2005	5	8	12	3	23	1,350
2003	5	8	10	4	22	1,140
2001	4	6	20	4	30	1,250
2000	5	17	30	6	53	844

※ ' () ' 표기는 중복수치임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부산비엔날레에는 국내·외의 1,000명이 넘는 작가들이 참여하여 1,60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하였고, 3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하여 근 600만명에 이르는 전시 관람 인원을 기록하였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신생 비엔날레로서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부의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도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적인 문화행사의 사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향도 부산의 문화

역량의 신장에 기여하고 미래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산과 바다와 강이 있는 삼포지향(三包之鄉)의 자연 환경적 특성을 잘 살리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접점으로서의 지정학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향후 세계 정상급 비엔날레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5. 부산비엔날레의 오늘과 내일

1) 부산비엔날레의 잠재력

부산비엔날레는 해양문화와 대륙문화가 접속되는 지정학적 여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점으로서의 도시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베니스나 시드니, 칸느와 마찬가지로 해양 도시만의 독특한 문화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상하이, 타이페이, 후쿠오카, 요코하마, 시드니 등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해양 도시간의 활발한 교류와 문화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 태종대, 물운대, 동래온천, 금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갈치시장, 범어사, 동래산성, 산복도로, 유엔묘지와 같은 문화적 장소들과 세계 수준의 숙박시설 및 대형 전시 컨벤션센터 등 지역이 확보하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는 부산비엔날레 행사에 매우 유용한 여건을 제공한다.

과거 청년비엔날레를 포함한 3대 전시운영 경험과 이미 5~6회에 걸친 부산비엔날레 개최 경험을 통해 획득된 노하우와 인적 물적 자원은 부산비엔날레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부산비엔날레의 존재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외의 우수한 미술 전문저널에도 누차 소개되었을 정도로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주요 비엔날레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새로운 문화 조류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관대한 지역의 개방적 정서와 도시의 역동적 기운은 비엔날레 개최지로서의 향도 부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 문화교류 행사로서의 비엔날레를 성공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부산비엔날레의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주요 문화 행사로서 부산비엔날레와 부산영화제는 흔히 비교의 대상이 된다. 부산영화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호응이 부족하고 열세인 것이 사실이며 일부 문화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 범시민적 참여의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부산영화제에 비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의 상징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부산비엔날레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미술계와의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부산비엔날레에 대한 지역 미술인들의 참여가 전시 참여 작가로서의 대거 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신해서 미술인들만으로 행사를 운영할 수 없는 현실도 당연히 받아들이지는 실정이므로 조직위원회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비엔날레와 미술인들 간에 자리하고 있는 소통 부족의 전적인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비엔날레에 대한 지역 미술인들의 무관심과 단절의 골이 깊어가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2000년 12월

사단법인체로 출범할 당시 자생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간주도형 비엔날레를 지향하였고 별도의 사무국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행사 운영 면에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처리 방식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오늘의 부산비엔날레가 갖는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집중과 확산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하겠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2008 부산비엔날레의 전시주제는 초기서부터 8년을 이어오던 부산비엔날레의 지향이라 할까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의 맥락에서 다소 벗어난 느낌을 준다. 섬세하고 세심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수용대중이라면 일관성이 부족한 비엔날레라고 생각할 듯하다. 또 확산의 전략은 비엔날레의 존재 이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미술 이전에 예술의 근원적 의미와 근본적 가치가 수용대중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대중성 확보를 중심으로 전시의 기획과 운영의 구체적 방향을 항시 모색하고 도시공간의 다양한 공공 영역과 삶의 현장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전시장소의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6부산비엔날레에서의 CAFE 프로젝트와 2008부산비엔날레의 미월드 프로젝트에서 선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10년의 역사를 경과한데 불과한 부산비엔날레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조금의 성과와 업적에 안주할 수는 더욱 없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부산비엔날레가 존재하는가?’이다. 부산미술인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지만 비엔날레가 자리하는 장소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비엔날레의 주체는 시민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과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산시민을 대리한 공적 임무의 성격을 갖는다. 부산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지향을 말할 때 문화민주주의가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제언

시민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해서 부산비엔날레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은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음악과 문학, 춤, 연극, 영화 등 여러 장르를 망라하는 예술이 본래 그러하고 현대의 미술도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지만 그럼에도 수용대중과 감상대중이 본질적으로 예술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의 현실세계를 뛰어넘거나 대안으로 제시되는 어떤 미적 전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유쾌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위안과 격려일 수도 있으며 암담한 시대 현실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증언일 수도 있고 힘찬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우리의 일상에서 잊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어떤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일깨워 우리들의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주와 자연에 내재하는 질서와 조화의 원리들을 새롭게 드러내 보여주는 색채와 형태들의 아름다운 표현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건 살아 있는 예술의 메시지는 수용 대중들의 삶에 생기와 활력을 제공한다.

지역 미술계와의 소통 문제는 법인체로 출범할 당시부터 줄곧 현안이 되어 왔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갖는 장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추진력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면 단점으로는 미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발성이나 책임의식을 이끌어내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 사단법인체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비엔날레로의 전환과 같은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부산 미술계와의 진일보한 협력의 구축과 소통을 위한 부산비엔날레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집중과 확산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부산비엔날레의 목적이랄까 존재 이유와 맞물린 문제이므로 차후의 전시기획과 같은 사업 수행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서 매우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어떠한 비엔날레이든 동시대 현대미술의 현재적 동향과 흐름을 한 자리에 모아 제시하는 비엔날레 행사의 보편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취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개최지마다의 독자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부산비엔날레가 자리하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부산 문화의 성격, 그리고 부산이라는 장소성과 거기에 몸담아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형편과 구체적인 삶의 일상이 갖는 양상을 매우 섬세한 미적 감수성으로 포착하고 그것을 전시의 맥락에 유기적으로 담아내는 전시기획자나 참여 작가들의 탁월한 역량을 여하히 담보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부산비엔날레는 도시의 동시대적 현실(시간)과 구체적인 삶의 공간(space)과 장소(place)에 보다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비엔날레가 되기를 희망한다.

개인사와 집단으로서의 체험들이 영겨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도시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며 성찰해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감각의 과부하(sensory overload)로 요약되는 대도시적 삶의 체험은 전체의 문제들을 조망할 수 있는 시각과 사고의 지평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의 우리 모두는 치매도 아니고 건망증도 아니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의 땅에서 빈번히 놓친다. 인류문화사를 통틀어 높이 날면서 세계를 넓게 조망하는 이는 사상가와 예술가였다. 부산비엔날레는 그러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그에 담긴 작품세계들을 모아내는 그러한 비엔날레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정기총회 회의자료(2001~2009년)
- 부산비엔날레 결과보고서(2002~2008년)
- 부산비엔날레 전시도록(2000~2008년)
- 부산비엔날레 보도자료집(2002~2008년)
- 부산비엔날레 학술행사 자료집(2000~2007년)
- 부산비엔날레 발전방안 연구(2001년)
- PICAF 결과보고서(1998년)
- PICAF 전시도록(1998년)